



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방문

- ‘한국형 복합리조트’로서 고부가관광 견인을 위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 당부

-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4월 30일(화),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(대표 첸 시, 이하 인스파이어)를 방문하였다.
- 인스파이어는 호텔, 외국인 전용 카지노, 국제회의시설, 대규모 실내 전용 공연장, 쇼핑몰 등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 복합리조트로, 작년 12월 개장 이후 약 120만 명이 방문하였다.
- 이날 방 실장은 인스파이어의 전문 공연장(아레나)과 디지털 미디어아트 거리, 쇼핑몰, 컨벤션 등 주요 시설들을 살폈다.
 - 방 실장은 “인스파이어 개장 이후 우수한 관광기반 시설과 해외 유명가수의 내한 공연 및 K-팝 콘서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지역관광산업이 활력을 띄고 있으며,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”하고 있음을 격려하였고,
 - 앞으로도 인스파이어가 ‘한국형 복합리조트’의 모범사례로서, 우리나라 고부가관광을 견인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사회조정실	책임자	과 장 김부선 (044-200-2328)
	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정재영 (044-200-2329)